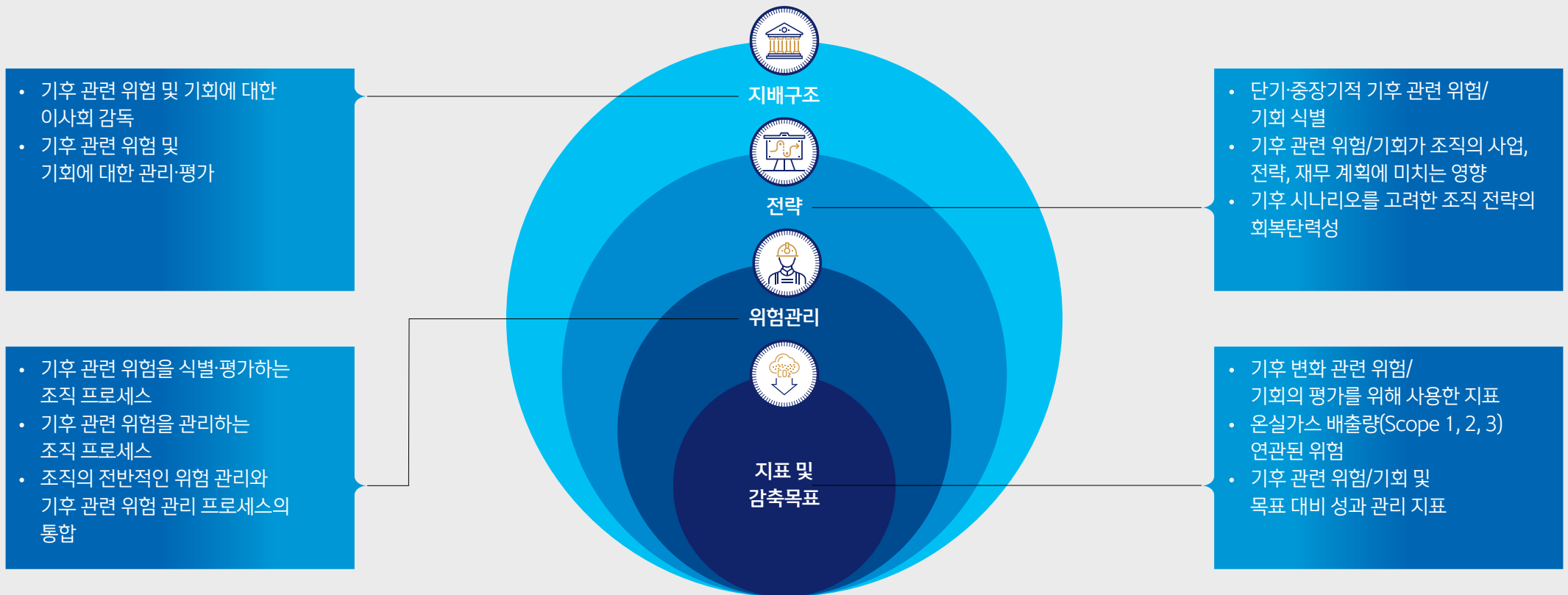


기후변화 재무영향 공개(TCFD)

기후변화 관련 선도적 책임 이행을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한국기업 최초로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이하 TCFD)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설립된 다자 간 협력기구로,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 및 금융규제 체제 개편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금융안정위원회가 발족한 TCFD는 2017년 6월 권고안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적 영향을 공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재무영향 공개(TCFD)

2019년 1월 기준 전 세계 580개 기업(318개 금융기업)이 TCFD 권고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유럽연합(EU),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정부기관에서도 권고안을 반영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리딩 금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2018년 9월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TCFD 권고안 지지 서명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UNEP FI를 중심으로 TCFD 이행을 위한 금융사 대상 2차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주사의 전략기획팀, 리스크관리팀 등 유관부서를 포함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13개월 간 추진될 2차 파일럿에 참여해 TCFD 권고안을 선도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1. 지배구조

신한금융그룹은 회장을 포함한 이사회 5인으로 구성된 사회책임경영위원회(CSR Committee)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며 그룹의 지속가능경영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경영위원회는 그룹의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환경경영 실천을 통해 전사적 환경 가치를 창출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회책임경영위원회는 이사회 산하 기구로서 연3회 정기적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및 정책, 전사적 활동 계획 및 사업 계획 등을 검토합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전사적 차원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리스크 협의회를 통해 장·단기적 목표 달성 수준을 점검하고 이행 실적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2. 전략

2018년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룹 차원에서 친환경 경영 비전인 'ECO Transformation 20·20'을 선포하였습니다. 본 비전은 저탄소 금융시장 선도, 친환경 경영 확산, 환경 리더십·파트너십 강화의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녹색산업에 20조 원을 투자 및 지원하며 그룹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까지 절감하는 정량적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저탄소 금융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신재생 고효율 에너지 관련 산업 및 기업, 프로젝트 사업 등에 투·융자 복합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업권별 신상품 및 서비스를 도입하여, 환경 리스크관리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친환경 경영 확산을 위해서는 친환경 설비 투자 확대,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에 동참하여 탄소관리체계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환경 리더십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국제적 협력 및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적극적인 친환경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기후변화 재무 정보 공개 프레임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의 지속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3. 위험관리

신한금융그룹은 그룹차원의 기후변화 관련 전환적 위험(Transition Risk)과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 등 위험과 기회 요인에 대하여 다각적 분석을 실시하고, 효과적 관리를 위한 녹색경영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전환적 위험 관리를 위해 그룹차원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를 위해 IFC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글로벌 금융기관, ESG 평가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기준을 참고하여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생물다양성, 산업안전보건 등 환경사회적 이슈가 많은 12개 유의영역(area of interest)을 선정하였습니다. 유의영역 익스포져, 환경사회 이슈로 인한 산업, 기술 변화 및 규제 동향 등 다양한 관점의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환경사회 영향이 큰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배제 또는 조건부 금융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석연료 익스포져가 큰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 및 지원의 비중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재무적 영향이 큰 사업에 관해서는 환경사회영향평가를 통해 프로젝트의 위험등급을 분류하여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환경사회 위험요인에 대한 경감이나 관리가 필요할 경우 금융계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룹 내 계열사별로 ESG 대출 및 채권, 투자상품을 항목별로 관리하며 점차적으로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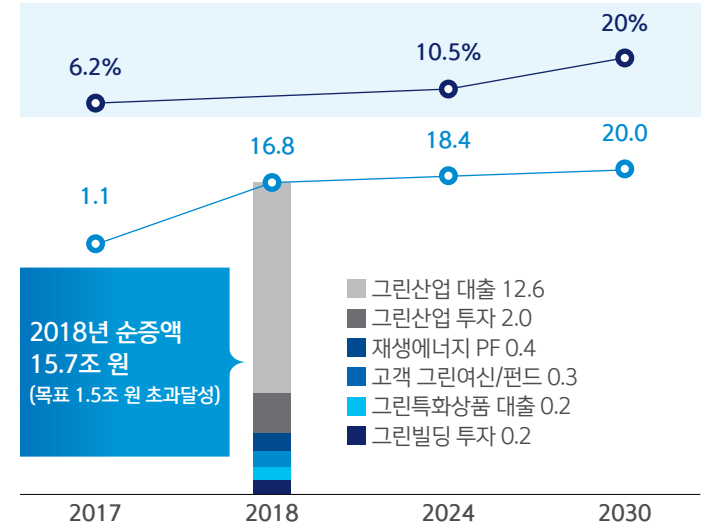
4. 지표 및 감축 목표

신한금융그룹은 금융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지향적인 친환경 경영을 위한 비전인 'ECO Transformation 20·20'을 적극 이행하여 저 탄소 경제 이행의 리더로 거듭날 것입니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탄소 배출 관련 자산 가치의 하락과 저탄소·친환경 기술 도입 등으로 인한 새로운 시장 창출 및 투자 기회를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신한금융그룹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까지 BAU대비 37%감축) 달성을 위하여 기후변화를 고려한 대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탄소 배출군의 투자 및 대출의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산업·기술의 투자는 확대할 것입니다. 신재생, 고효율 부문의 금융지원을 늘리고, ESG 펀드, 그린본드, 그린빌딩 등의 투자규모를 확대하여 2030년까지 2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친환경 수송, 친환경 건물 투자 등 기존에 포함하지 않은 지속가능금융영역을 발굴하여 적극 확대하며 저탄소 경제 전환의 리더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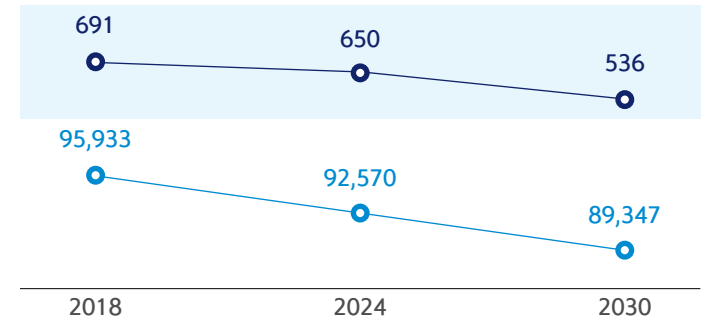
녹색산업 투자

● 국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 신한 녹색산업 투자(조 원)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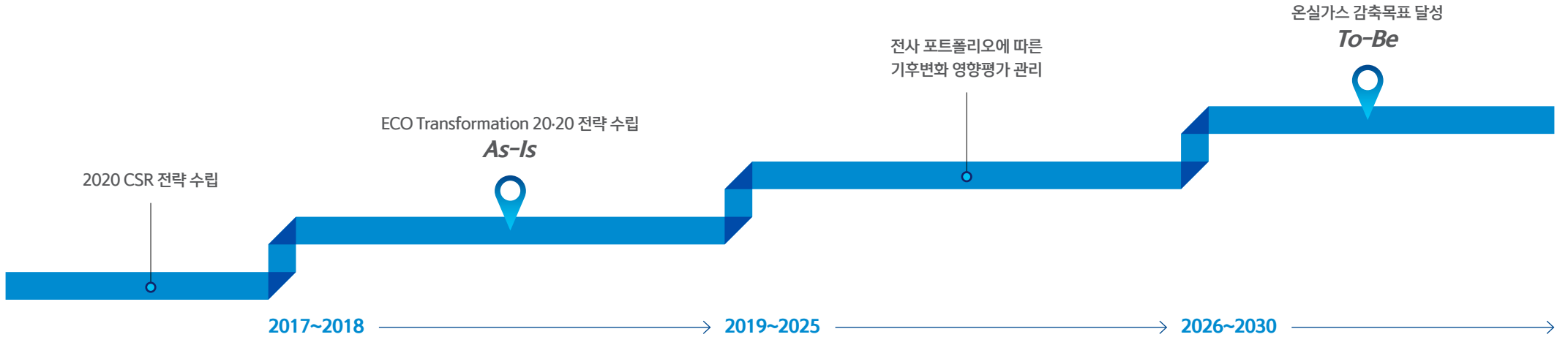
● 국가 목표(백만 tCO₂eq) ● 신한 목표(tCO₂e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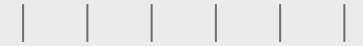


TCFD 추진 로드맵

신한금융그룹은 TCFD의 이행을 위해 기후변화 지배구조, 전략 및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재무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배구조	사회책임경영위원회 기후변화 아젠다 설정	비즈니스 영향 평가를 위한 기후변화 아젠다 고도화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전사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산업투자 활성화 업권별 新상품서비스 도입 환경 리스크관리체계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기후 신용 리스크 관리 강화 개별 거래 및 상품 단위의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트폴리오 리스크 비중 관리 전환 리스크가 높은 사업 비중 저하
위험 관리	<p>저위험 포트폴리오</p> <p>고위험 포트폴리오</p> <p>미관리 영역</p> <p>위험 관리 강화</p> <p>관리 영역 확대</p>		
정량적 지표 및 감축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산업 투자 16.8조 원 온실가스 배출량 95,933 tCO₂eq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산업 투자 18.4조 원 온실가스 배출량 92,570 tCO₂eq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산업 투자 20.0조 원 온실가스 배출량 89,347 tCO₂eq



기후금융 선도 전략 'ECO Transformation 20·20' 발표

신한금융그룹은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하기 위한 그룹차원의 친환경 경영비전인 'ECO Transformation 20·20'을 선포했습니다. 신한금융은 이사회 산하기구인 사회책임경영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친환경 경영 비전인 'ECO Transformation 20·20'을 실행하기로 결의했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녹색산업에 20조 원을 투자 및 지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까지 절감하는 탄소경영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지향점

Target

추진방향

핵심전략

Enablers





기후금융 선도 전략 'ECO Transformation 20·20' 발표

'ECO Transformation 20·20'은 저탄소 금융시장 선도, 친환경 경영 확산, 환경 리더십·파트너십 강화의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우선 저탄소 금융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신재생 고효율 에너지 관련 산업 및 기업, 프로젝트 사업 등에 투·융자 복합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책임투자(ESG) 펀드와 그린본드, 친환경 건축물인 그린빌딩 사업을 활성화 할 예정입니다. 그린본드는 기후변화, 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프로젝트나 인프라 사업에 투자할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신한은행은 2018년 8월 시중은행 최초로 원화 그린본드를 2천억 원 규모로 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의 친환경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신한은행, 신한카드 등 그룹사를 통해 예적금, 카드, 보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페이퍼리스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로 환경 친화적인 금융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환경사회 리스크관리체계를 강화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경영 확산을 위해 업무용 전기차 도입,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에너지 효율 향상 설비 확충 등을 추진하며,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 선순환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선언

한편 신한금융그룹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과 6개 NGO가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다른 발전원과 구분해 구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제도 입법화를 위해 출범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제도의 효과적 설계를 위한 방향성 제시,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확대를 위한 로드맵 제안 등 기업의 에너지 선택권을 넓히고,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촉진하는데 동참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

핵심전략

이행방안



I. 저탄소 금융시장 선도

- 친환경 산업투자 활성화
- 업권별 신상품서비스 도입
- 환경 리스크관리체계 정착

- 신재생·고효율에너지 부문 투·융자 복합금융 지원 성과 창출
- ESG펀드, 그린본드, 그린빌딩 등 투자규모 확대
- 예/적금 카드, 펀드, 보험, 대출 그린우대 강화 및 상품 개발
- 환경사회 리스크 리뷰 및 정보공개



II. 친환경 경영 확산

- 친환경 설비 투자 확대
-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
- 탄소관리체계 확립

- 업무용차량 전기차 보급 및 자가건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 건물 에너지효율화 설비 확충
- ISO14001 인증 추진
- 환경성과 지표 목표 관리



III. 환경 리더십·파트너십 강화

-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친환경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 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 UNEP FI, CDP 등 국제기구 및 지자체·NGO와 협력 강화
- 글로벌 이니셔티브 채택 및 준수
-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 TCFD 권고안 준수 및 사업보고서 공시

UNEP FI 책임은행원칙 제정

신한금융그룹은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의 금융권 국제협약인 '책임은행원칙'을 28개 금융사 공동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책임은행원칙은 파리기후협정과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을 위해 금융권이 해야 할 역할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으로, 신한은 금융 본연의 기능을 통한 적극적인 책임 이행을 약속하였습니다.

원칙 1. 정렬 (Alignment)

우리는 '지속가능발전목표', '파리기후협약' 및 관련 국가와 지역 프레임워크에 명기된 바와 같이 우리의 사업전략이 개인들의 니즈와 사회 목표에 일치하도록 한다. 또한, 우리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원칙 2. 영향 (Impacts)

우리는 상품과 서비스 활동을 통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나가고 위험을 관리한다.

원칙 3. 클라이언트 및 고객 (Clients & Customers)

우리는 지속가능한 관행을 장려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 및 고객과 책임감 있게 협업한다.



원칙 4. 이해관계자 (Stakeholders)

우리는 사회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와 선제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협의하고, 참여하며, 협업한다.

원칙 5. 지배구조 및 목표 설정 (Governance & Target Setting)

우리는 책임은행 문화와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통해 이러한 원칙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중대한 영향과 관련한 공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의욕과 책임을 보여준다.

원칙 6. 투명성과 책임 (Transparency & Accountability)

우리는 본 원칙의 개별적, 전체적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회목표에 대한 기여와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UNEP FI 책임은행원칙 제정

신한금융그룹은 11월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환경계획 금융부문(UN Environment Program Finance Initiative, 이하 UNEP FI) 글로벌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전 세계 금융 산업을 위한 ‘책임은행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이하 PRB)’을 공동 제정·발표했습니다. 이 원칙은 파리기후협정과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을 위한 금융 산업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국제 협약으로 신한금융은 2018년 3월부터 중국공상은행, 바클레이스, BNP파리바, ING 등 28개 글로벌 금융사와 함께 원칙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책임은행원칙은 경제 시스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금융 부문이 사업전략과 상품·서비스를 통해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벤치마크를 제시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금융의 선도적 역할을 제시한다는 데도 그 의미가 깊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PRB는 검증 절차와 금융권 공동 목표 설정 과정을 거쳐, 2019년 9월 유엔총회에서 최종 비준할 예정입니다.

Transforming Banking 주제 토론

‘파리기후협정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가속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UNEP FI 글로벌 라운드테이블은 파리기후협정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 3주년을 맞아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슈를 금융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행사에는 글로벌 중앙은행 대표와 금융사 CEO,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약 1,500명이 참석했으며 국내 금융사 CEO로는 책임은행원칙 제정에 참여한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이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조 회장은 ‘Transforming Banking’을 주제로 열린 세션 토론을 통해 사회와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금융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그 우수사례로 신한금융의 포용적 금융과 생산적 금융지원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금융 본연의 기능을 통해 전 세계적인 저성장고령화, 청년실업, 기후변화 등의 이슈에 대응해 지속가능 성장을 돕고 사회·환경적 가치와 기업의 가치를 함께 제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신한금융그룹, UNEP 글로벌 라운드테이블에서
28개 금융사와 책임은행원칙 공동 제정·발표
(2018.11)

